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항공보험료 인상 예상

- 항공컨설트사인 Ascend는 최근 항공기 추락사고율이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 그간 낮은 수준의 항공보험료가 가능했으나, 2010년에는 2009년의 항공기사고 관련 보험금 급증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최근 항공기 추락은 150만회 운항 중 1회로서 1990년대 사고빈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등 항공기 운행의 안전성은 높아졌다고 발표함.
 - 그러나 2009년 항공기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25억 달러로서 2009년에 거수된 보험료(19억 달러)를 상회하는 등 항공기사고의 심도는 크게 증가한 모습임.
 - 항공보험료가 2009년에 20% 인상되지 않았다면 지급보험금과 보험료의 차이는 더욱 커졌을 것임.
 - 2009년에 지급된 25억 달러는 2001년 911테러로 50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한편, 항공보험료는 911테러 이후 항공운행담보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2년부터 인상추세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고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도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전환되었음.
- 2009년의 주요 항공기 추락사고는 3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손실은 428명이었고, 이들 중 대부분이 유럽 및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험금액이 더욱 커졌던 것으로 알려짐.
 - 2009년에 가장 많은 인명손실을 가져온 항공기 사고는 대서양에 추락한 Air France A330으로 228명이 있었고, 코모로스제도 근처에 추락한 Yemenia Air A320는 152명이었으며, 미국 버팔로에 추락한 Colgan Air의 추락은 48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됨.
 - 이러한 추락으로 인한 인명손실의 대부분이 서구 유럽 및 미국인이었으며, 이들의 사고와,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가족부양 배상책임으로 인해 보험금의 규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됨.
 - 추락 항공기 자체에 대한 동체담보(Hull insurance)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의 36%에 해당하는 9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됨. (Financial Times 1/8)